



“지금 북경엔 고려당 바람”



북경 고려당 김원복 상무

“현재 ‘북경 고려당’의 제품은 북경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품질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타 제품보다 2배 정도 비싼편이지만 최고 재료를 이용한 제품으로 상류층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휴가차 한국을 잠시 들른 ‘북경 고려당’의 김원복 상무는 최근의 근황을 이렇게 전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북경 고려당 식품 유한공사는 지난 93년 고려당과 북경시가 자본금 80만 달러 50:50의 비율로 설립한 합작회사. 그동안 생산을 위한 시설준비와 함께 중국 기술인의 한국기술 연수를 거쳐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제품 출하를 시작하고 있다.

현재 ‘북경 고려당’의 1일 생산능력은 빵 및 도우넛, 선물용 세트 20여 품목 2만봉 생산과 12가지 케이크를 3천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여기에 4월부터는 하루 8마개의 아이스크림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고려당처럼 북경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체는 일본을 비롯 대만, 싱가포르 등. 그러나 김원복 상무는 ‘북경 고려당’이 단시일내 최고의 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꼽는다. 북경 고려당은 인구 1200만명의 북경 인구중 상류층 10%를 타겟으로 고급제품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

“중국은 크리스마스가 활성화 돼 있지 않은데 우리의 크리스마스 케이크가 뛰어난 데커레이션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상상 외로 소비자의 반응이 좋자 예도 소개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2월 현재 17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북경 고려당’은 4월까지 50개 점포로 늘릴 예정이며 연말까지는 100개 수준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또 북경시와 1시간 정도 인접해 있는 천진시도 상주 인구 700만을 자랑하는 대도시 입을 감안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북경 고려당’의 이런 발빠른 점포 확산은 무한한 잠재 시장성과 세계 혜택, 생산 여건 등 유리한 조건에 있기에 가능하다. 거대한 인구와 의식주 면에서 음식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중국인의 식생활 합자에 따른 3년간의 세계 혜택, 국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노동력과 저렴한 생산비용 등에서 유리함을 갖고 있다.

“점포당 매출액이 1일 2,500원에 이릅니다. 중국 공무원의 한달급여가 250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25만원 수준이 됩니다. 제품이 인기가 있자 현지인 중 ‘북경 고려당’ 점포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어 분점 사업도 고려중입니다.”

‘북경 고려당’은 합자에 따르는 이익을 당분간 사업확정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전에 중국이 제빵 사업을 위해 수입된 외국의 수입 기계가 남아 돌고 있어 이를 싸게 구입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며 5년 안에 튼튼한 기업으로 자리잡는다는 것이 ‘북경 고려당’의 장기적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과 기업체 중 가장 먼저 중국에 진출해 최고의 제품으로 입지를 굳혀 가고 있는 ‘북경 고려당’의 향후 발전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